

■ 화제의 뉴스 ■

2. 서울시, 정비업체에 대해 무더기 업무정지(등록취소) 처분해

서울시는 10월 4일 서울지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199개사의 20%에 달하는 40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내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.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 4~7월, 서울시에 등록된 199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하였고, 점검결과에 따라 이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.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”며 “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,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할 것”이라고 밝혀, 앞으로도 고강도의 점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[관련 링크]

- [서울시, 재건축·재개발 부적격 정비업체 26곳 '업무정지'](#) - 서울파이낸스 | 2012. 10. 4.
- [서울시, 부적격 정비업체 26곳 업무정지](#) - 연합뉴스 | 2012. 10. 4.